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150년

베른트 파울렌바흐, 보쿰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은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며,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사민당은 인권, 시민권, 사회권의 실현 및 포괄적 정치·사회 참여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해방 운동 과정의 일부로, 이는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어 산업화 및 사회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사실 19, 20세기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사민주의는 처음부터 언제나 절대관료국가와 독재에 대항해 싸웠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점에 이르렀던 20세기 “독일의 특수한 길”이 초래한 파국에 대해 무엇보다 정책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정치 세력이었다. 오늘날에는 정치 스펙트럼의 좌측에도 경쟁 정당들이 있지만, 사민당은 여전히 큰 민주개혁 정당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

2013년 8월

독일이 1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민주의와 그 출발점인 19세기 중반의 사민주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며,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사민당은 인권, 시민권, 사회권의 실현 및 포괄적 정치·사회 참여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해방 운동 과정의 일부로, 이는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어 산업화 및 사회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사민주의의 자화상과 사민주의적 가치

독일이 1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민주의와 그 출발점인 19세기 중반의 사민주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민당은 변화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사민주의를 이끄는 기본적 전제로서, 인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경제적 절차와 정치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착취를 근절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관철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1860년대 후반에 만든 사민당 최초의 당기(黨旗)에는 “페르디난트 라살”이라는 이름과 전독일노동자연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ADAV) 창립 날짜 “1863년 5월 23일”이 새겨진 리본이 달린 월계수관 안에 노동운동의 상징인 마주잡은 손이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그림 위에 프랑스 혁명의 요구사항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가 쓰여 있다. 이로부터 약간 변형된 것이 현재까지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이다.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1987년 빌리 브란트가 강조한 바와 같이, 몇몇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자유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 이념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의”의 이념 및 약자를 돕는 “연대”의 이념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새로이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19세기 중부 유럽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사민주의가 많은 것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의 와중에서 빈곤, 궁핍, 불안에 내몰렸던 국민이 사회적 법치국가의 의식 있는 국민으로서 소구(訴求) 가능한 기본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후퇴할 위험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59년 채택된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길은 곧 목적이다.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독일 사민주의의 초기

1863년 라이프치히의 제화 장인 율리우스 팔타이히와 담배 노동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프리체는 저널리스트였던 페르디난트 라살에게 노동자의 정당, 즉 국민 다수의 정당을 설립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다. <현 역사적 단계와 노동자 계층 개념의 특별한 연관성에 대하여> 라는 연설문을 발표했던 라살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보통선거 도입과 국가 지원¹에 의한 노동자생산조합 건설의 요구를 담은 강령을 작성했다. 1863년 봄, 11개 지역 대의원들이 라이프치히에서 모였고, 라살은 강력한 전권을 갖는 초대 전독일노동자연맹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1년 후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라이프치히에서 창설된 전독일노동자동맹은 독일 사민주의의 시초가 되었고, 사민주의는 오늘날까지 그 조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1869년에는 아이제나흐에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의 지도하에 작센국민당 (Sächsischen Volkspartei)을 주요 기반으로 발전된 또 하나의 정당(사회민주노동당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이 창당되었다. 당시 독일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양측²은 처음에는 대립했다. 그러나 양 진영은 보불 전쟁 및 독일제국 창설 후 알자스-로렌 지방 합병에 대한 비판과 파리 코뮌 붕괴 지지로 인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박해당했고, 이 같은 공통된 경험은 1875년 고타에서 두 당이 사회민주당(사민당)으로 연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전독일노동자연맹에서 15,000명, 아이제나흐파에서 9,000명이 새로운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

창당 당시를 보면 네 그룹의 당원 구성이 눈에 띈다. (1) 1848년 혁명의 민주주의자들, (2) 다수의 수공업 도제 및 장인들. 그들은 길드제도로의 귀환 불가능성 및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3) 새로운 산업분야의 노동자들. 특히 숙련공들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후 사민주의 발전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4) 주변적 시민 세력, 페르디난트 라살,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같은 지식인들, 언론인, 교사들 외에 변호사들도 가세했다.

초기 사민주의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라는 개념을 매우 넓게 잡아, 거의 “국민, 민중(Volk)”과 같은 뜻으로 썼다. 사민주의 노동자 운동은 제 4계층의 해방 운동이자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19, 20세기의 발전

사민당 역사의 특징은 연속성과 변화였다. 사민당은 처음부터 폭넓은 국민 계층을 대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8년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운동 억압을 위해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선포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마르크스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계급 정당으로 이해했다. 그러

사민당 역사의 특징은 연속성과 변화였다. 사민당은 처음부터 폭넓은 국민 계층을 대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8년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운동 억압을 위해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선포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마르크스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계급 정당으로 이해했다.

나 사민당은 언제나 좌파 대중정당의 성격도 유지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중심 기조를 버린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이후에 사민당은 스스로를 “좌파 대중정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데스베르크”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민주의적 개량주의의 상징이다.

지난 150년간 사민주의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사민주의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사민주의는 설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사회적 개혁 운동이다. 초기에는 사회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면서, 소유권 문제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정한 지렛대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사민당은 스스로를 “혁명적” 정당으로 이해했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사민당은 구체적 개혁, 예컨대 어린이 노동 금지, 노동보호, 하루 8시간 노동 등을 위해 싸웠고, 실제로 노조와 더불어 근로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단체협약을 관철하며, 사회국가(Sozialstaat)를 통해 자본의 힘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에 따르면, 이는 근대 유럽 정치가 거둔 최대의 성과 중 하나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자본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1980년대 이후 신기술, 경제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면서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 다시 “야수 자본주의”(헬무트 슈미트)를 길들이고, 고삐 풀린 시장, 특히 금융시장을 규제할 필요성,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교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사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독일에는 이와 함께 최소 임금 도입, 파견근로 규제 등과 같은 구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좋은 노동”은 지금도 사민주의의 주요 관심사이다. 오늘날의 사민당은 불평등 심화 및 양극화 방지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이것 역시 본래 사민주의가 탄생시킨 목표이다.

2) 사민주의는 처음부터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사민주의자들은 1848년 혁명 주역인 민주주의자들의 계승자였다. 그들은 민주적 개혁 및 프로이센의 3등급 선거제도 등으로 나타난 절대관료국가의 극복을 위해 싸웠다. 보통선거를 모든 의회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이미 19세기에 최초로 여성의 선거권을 요구했다. 1918/1919년에 이 목표를 이루었으나, 성 평등 문제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사민당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최초 민주주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사민주의자 필립 샤페만은 1918년 11월 9일 베를린 소재 제국의회 의사당 발코니에서 공화국을 선포했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이끄는 사민당은 바이마르 국민의회 소집과 바이마르 헌법 제정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자본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1980년대 이후 신기술, 경제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면서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초석을 놓았다. 바이마르 헌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결점이 있지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헌법 중 하나였다. 이 헌법은 사민당, 개화된 진보적 시민 그룹들, 가톨릭계 독일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 간의 기본 합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시작된 시민 계층의 우향화는 신생 민주주의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바이마르 연립정부는 첫 번째 정기 제국의회 선거에서 이미 과반수를 상실했다. 단지 프로이센에서만 사민주의자 오토 브라운 총리 하에서 1932년 7월 프란츠 폰 파펜의 쿠데타 때까지 통치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민주의의 목표는 사회 법치국가를 확충하고, 이를 “경제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사민당은 반민주주의적 법에 대항해 투쟁했으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외치며 끝내 공화국과 불화하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민당을 주적(主敵)으로 삼았던 독일공산당(KPD)과는 매우 달랐다.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하고 극단주의가 자라나면서 사민당은 1932/1933년에는 가망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은 분명 사민당의 심각한 패배였다.

1933년에 공화국 지지자는 사민주의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사민당은 1933년 5월 23일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킨 히틀러의 전권위임법에 반대한 유일한 의회 내 정당이었다. 오토 벨스 사민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여 한 용기 있는 연설에서 “인간성, 정의, 자유, 사회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어떠한 전권위임법도 히틀러에게 “이 영원한 불멸의 이념을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했다. 사민주의는 독일 의회주의 역사상 최악의 암흑의 순간에 독일 민주주의의 명예를 지켰다.

이후 나치 정권은 사민당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민주의자를 박해했다. 수천 명이 수용소에 갇혀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외국으로 도피했으나, 대다수 당원들은 뒤로 물러나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민당 망명 지도부와 연계하여,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 저항했다. 율리우스 레버, 빌헬름 로이쉬너, 카를로 미렌도르프와 같은 유력 사민주의자들은 히틀러 정권을 전복시켜 수용소 학살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1944년 7월 20일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

사민주의자들의 투쟁 대상은 절대관료국가나 히틀러 독재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1945년 이후 소련 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동독에 구축된 스탈린주의 독재와도 싸웠다. 동독에서도 사회적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해, 수감되거나 도피해야 했다. 사회민주주의 사상은 동독 정권 내내 처벌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이로 인해 대학 제적 등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89년 가을에야 비로소 동독에 사민당이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 동독 사민당은 1989/1990년 독일 통일 과정의 주요 세력 중 하나였다.

사민주의는 1945년 이후 서독 민주주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민주의자들의 투쟁 대상은 절대관료국가나 히틀러 독재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1945년 이후 소련 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동독에 구축된 스탈린주의 독재와도 싸웠다. 동독에서도 사회적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해, 수감되거나 도피해야 했다.

했다. 예컨대, 제헌의회(Parlamentarischer Rat)에서 기본법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민당의 카를로 슈미트가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은 초대 서독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방주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제정으로 그 정점을 맞은 당 개혁 이후, 1960년대 초에는 사민주주의의 꾸준한 성장기가 시작되었고, 1966년에는 사민당과 기독교민주당(기민당, CDU)이 대연정을 구성하였고, 1969-1982년에는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라는 걸출한 연방총리를 배출했다. 그래서 1970년대를 사민당이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 서독의 “사민주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서독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이룬 민주주의의 성장은 사민주주의의 영향이 컸다. 빌리 브란트는 1969년 10월 28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도하자”라는 모토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민주당(자민당, FDP)과 연정을 이룬 사민당의 사민주주의의 정치는 투명성 제고, 근로자의 공동결정권 및 성숙한 국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통한 광범위한 민주화를 목표로 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고 이를 통해 노동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 가능해졌다. 그 외에 정부는 사회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사민주주의 정치 노선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는 “시장과 일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페어 슈타인브뤼크를 연방총리 후보로 하는 사민당은 금융시장과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대항하는 민주적 정치의 우위를 위해 싸우고 있다.

3) 사민주주의는 태생부터 교육 및 문화 운동이었다. 철저한 신분계급 사회에서 사민주주의가 소외 당하던 제국 시절, 사민주주의 노동자 운동은 자체적인 교육·문화 및 여가활동조직을 구축했고,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정점에 이르렀다. 사민주주의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교육과 문화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교육정책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사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사민주주의의 입장은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주주의는 이 분야에서도 참여 기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4) 사민당은 스스로를 항상 발전하는 정당으로 이해했다. 오랫동안 기술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민당은 다른 정당들보다 먼저 환경보호 필요성을 인식했다. 빌리 브란트는 일찍이 1961년에 중공업이 발달한 루르 지방의 하늘이 푸른색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도 사민당이였다. 사민당은 많은 주요 기술 분야, 특히 원자력의 이중적 성격을 간파하고, 1970년대 말부터 “발전” 개념을 수정하여 산업사회의 친

사민주주의는 태생부터 교육 및 문화 운동이었다. 철저한 신분계급 사회에서 사민주주의가 소외 당하던 제국 시절, 사민주주의 노동자 운동은 자체적인 교육·문화 및 여가활동조직을 구축했고,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정점에 이르렀다.

환경적, 사회적 개편 구상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1998-2005년에 사민·녹색 연정을 이끌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2기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이 사민·녹색 연정뿐 아니라 그 뒤를 이은 기민·사민 대연정 시기에도 신자유주의 패권과 싸워야 했던 것은 시대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보면 알 수 있다.

5) 독일 사민주의는 국제정치에서도 항상 국제 평화와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 사민당은 제국 시절에 이미 국제 중재제도와 국제연맹 창설을 옹호했으며, 1925년 하이델베르크 강령에서는 유럽합중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독일 서쪽 국경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추구한 로카르노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사민당은 또다시 유럽 통합을 지지했다. 그러나 쿠르트 슈마허가 이끄는 사민당은 반드시 동서독이 함께 통합된 유럽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자, 사민당은 독일 관련 유보 조건을 포함하는 유럽정책을 포기하고 1956년 로마조약에 찬성했으며, 그 이후 줄곧 유럽 통합정책에 동참했다. 유럽정책의 주요 진척은 사민당 소속 연방총리들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다.

동서독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은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으로, 이 정책은 양쪽 국민들이 더 멀어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양국의 상호 접근 과정을 촉진했다. 또한 신동방 정책은 동서독 간 긴장완화를 촉진하여, 이것이 결국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프로세스로 이어졌다. 베를린 장벽 구축부터 붕괴에 이르는 시기에 사민당이 수행한 최대의 대외 정치적 과업은 동서독 간 대립의 수정 및 극복이며, 사민당의 동방 정책은 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빌리 브란트가 남북문제위원회 위원장 및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으로서 한 역할 역시 사민당의 국제관계 관련 주요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브란트는 “세계 내정(Weltinnenpolitik)”³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이들 중 한 사람이다.

지난 이십 년을 살펴보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끈 사민·녹색 연정의 이라크 전쟁 반대도 여기에 요약한 사민당 대외정책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상황

다른 큰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사민당도 1980년대부터 당원 및 지지자 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 원인은 전통적 근로자 환경의 침식을 촉진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 사회의 세분화, 문화적 개인주의화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환경과 기후 문제를 최우선시하나, 이 문제는 사민당에게 중요한 분야이기는 해도, 여러 분

동서독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은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으로, 이 정책은 양쪽 국민들이 더 멀어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양국의 상호 접근 과정을 촉진했다.

야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밖에도 인적 구성이 정치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이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사민당 지도부의 변경이 잦았던 1990년대에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당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언제나 공익의 편을 선택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이 가장 최근의 예이다. 세계화 시대에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아젠다 2010의 내용은 사민당 지지층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현재 독일이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민당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정책 분야가 있다는 언급을 통해 시사한 바와 같이, 사민주의적 주제들은 독일 및 유럽의 공론에서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기사당이 이러한 주제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모든 사민주의적 정책 단초들을 취한다는 점은 사민주의가 구조적으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지난 독일 주의회 선거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사민당은 양대 대중정당 중 하나로써 조만간 연방총리를 배출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독일 사민주의 역사는 15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독일과 유럽의 문제들이 바로 사민주의적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후주 |

- 1) 헤겔학파는 국가가 그러한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2) 라살 추종자들은 프로이센 주도하의 통일을, 아이제나흐파는 대독일·민주주의 해법을 주장했다.
- 3) 브란트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고, 이는 후에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윤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를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3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